

월요광장

진정한 광장을 위하여



심 옥 숙
인문지행 대표

“어느 경로로 광장에 이르렀건 그 경로는 문제 될 것이 없다. 다만 그 길을 열거나 열심히 보고 얼마나 열심히 사랑하느냐에 있다.”

최인훈 작가의 대표적인 작품 ‘광장’(1960)에 나오는 말이다. 이 말이 특별한 울림을 주는 까닭은 거칠고 사나웠던 겨울바람을 이겨 낸 광장에 대한 우리의 바람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이제 광장은 긴 산고 끝에 ‘광장의 대통령’을 표방하는 새 국경 책임자를 막 출산했다. 하지만 아무리 유능한 대통령 한 사람 손으로 광장을 지켜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더 중요한 것은 각자가 걸어 온 경로와 상관없이 광장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광장’의 주인공 이명준은 자신이 속한 사회가 희망 없는 밀실이라는 생각에 심한 환멸을 느끼고 광장을 찾아서 남과 북을 방황한다. 결국, 그는 어느 곳에서도 정착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그가 본 것은 어느 쪽에서나 이름만 다를

뿐 이념의 폭력과 어두운 밀실뿐이었다. 이명준은 왜 그렇게 광장을 찾았던 것일까?

광장의 의미는 고대 그리스인들의 삶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그리스인들은 광장을 아고라라고 부른다. 이들에게 아고라는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고 공간이었다. 자유 시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이 남달랐던 그리스인들은 도시에 아고라가 있고 없음에 따라서 그리스인과 비그리스인으로 나눌 정도였다. 광장을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살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서로 다른 생각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기 위해서는 실든 좋든 서로를 이해하고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으며, 그러기 위해서 광장은 꼭 필요한 것이었다.

그리스인들에게 아고라는 구체적으로 어떤 곳이었는가? 아고라가 처음 생긴 것은 기원 전 6세기경으로 알려져 있다. 아고라는 시민들의 정치·사회적 교류의 중심이며 경제 활동을 위한 시장으로 사용되는 장소였다. 이러한 아고라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보다도 의사소통과 여론 형성의 중심지였다. 그리스인들은 아고라에 나와서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설득하는 것을 시민에게 주어진 당연하고 자랑스러운 의무와 권리로 여겼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젊은이들에게

“너 자신을 알라”고 가르친 곳도 아고라고, 이런 가르침이 아테네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불경죄가 되어서 사형 재판을 받은 곳도 역시 아고라의 시민 법정이었다. 이렇게 보면 그리스인들의 자부심은 함께 모여서 문제를 해결하며 서로를 인정하는 것을 배우는 아고라를 가진 것에 대한 긍지에서 나온 셈이다. 이런 그리스의 아고라는 점차 로마를 비롯해서 유럽의 전역에서 광장의 형태로 계승되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시민들의 의사 표현 장소와 시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광장이 한 사회의 품격과 시민의 권리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상징이 된 것이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광장을 뜻하는 아고라가 어원적으로 ‘함께 모이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점이다. 이를 통해서 아고라가 가리키는 광장의 의미가 단순히 개방된 물리적 장소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람들의 모임, 즉 교류 자체가 광장의 의미에 포함되는 것이다. 사실 광장은 늘 있었다. 다만 사람들에게 개방되지 않았을 뿐이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광장은 하나의 공허한 빈터일 뿐이다. ‘광장’의 이명준이 찾던 광장은 빛바랜지 오래된 이념의 폭력과 부당한 권력 행사 대신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삶의 방식을 논하고 존중하는 그런 광장이었을 것이다.

우리는 이명준이 소망하던 그런 광장을 이뤄 냈는가? 분명한 것은 진정한 광장은 일상 속에서 여전히 자리 잡지 못했

다는 것이다. 광장이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목소리만 내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해다. 광장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곳, 소통과 공간이 이뤄지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행위이며, 이를 행하는 공간이다. 그래서 광장으로 향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밀실’의 문을 여는 것이다. 광장과 밀실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고 문을 열고 개방하면 광장이고 문을 걸어 잠그면 어두운 밀실이 되는 하나의 공간이다.

밀실은 타인의 생각과 언어를 부정하고 오직 ‘나’만이 군림하는 공간이다. 돌아보면 우리는 수많은 밀실 속에서 산다. 오직 한 사람의 결정과 판단을 따르는 것에 길들여졌다. 이렇게 해서 밀실은 계속해서 또 다른 밀실을 재생산하고 소통과 공감의 광장은 설 자리가 없다. 힘과 지식과 권위의 밀실은 직장과 이웃, 심지어는 부부와 가족 간에서도 ‘광장’을 거부한다. 그래서 광장의 문은 좀처럼 열리지 않는다. 우리 자신이 광장에 자물쇠를 채우고 밀실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런 밀실들이 일상의 광장을 억압하는 한 지난겨울을 이겨 내고 새로운 시간 앞을 선 공동체의 광장 또한 깊게 뿌리내리기 어렵다. 그리고 광장이 없는 사회에는 이명준의 절망이 있을 뿐이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제대로 된 진정한 광장을 건설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광장의 주인도, 밀실의 주인도 우리이기 때문이다. 그 첫걸음은 굳게 걸어 잠근 우리의 오래된 밀실의 문을 여는 것이다.

법조칼럼

5·18민주화운동과 대통령, 그리고 청년



박 철
변호사·법무법인 법가

문재인 대통령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는 제37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은 5·18 기념행사 참석은 물론, ‘임을 위한 행진곡’을 기념식 참석 인사들, 광주시민, 나아가 5·18민주화운동의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광주의 민주정신을 기리는 수많은 국민과 제창할 것을 여러 차례 약속했습니다. 시간적 제약으로 기념식 전까지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민주화운동 기념곡으로 지정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대통령과 국가보훈처의 깜짝 선물도 기대해봅니다.

대통령이 정부 주요 인사들의 임명과 중요 사안을 직접 국민에게 설명하고, 참모들과 테이크아웃 커피를 한 잔씩 들고 자유롭게 답소를 나누며, 직원들과 구내

식당에서 함께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일상이 된 것도 보기 좋지만, 국민의 여망이 그대로 반영되어 국정이 운영되어가는 현실을 하나하나 묵도하는 것은 더 없는 감격과 기쁨입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 이야기가 나왔으니 이 곡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잠깐 살펴볼까요. 이 노래는 1982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소설가 황석영씨가 백기완씨의 ‘뫼비우스’라는 시에서 가사를 따왔고, 김종률씨가 곡을 붙였습니다. 이 노래에는 윤상원씨와 박기순씨의 사연이 담겼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서 은행원이 된 윤상원씨는 안락한 미래를 버리고 고향 광주로 내려와 야학교사가 되었고, 박기순씨는 1978년 당시 전남대 학생들과 광주 공단 근처에 ‘들불야학’을 열고 노동자들과 배움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박기순씨는 5·18민주화운동이 있기 두 해 전 불의의 사고를 당했고, 후배의 죽음을 안타까워했던 윤상원씨 역시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 대변인으로 끝까지 도정을 지키다 계엄군에 의해 끝내 나이에 숨졌습니다.

동료들은 선택 민주화 및 노동운동에 몸담았던 두 사람을 영혼결혼식으로 맺어주었고, 식이 끝난 후 두 사람과 5·18년

주화운동으로 돌아가신 영령을 달래줄 노래를 만들고자 의기투합하여, 특별한 녹음장지 없이 기타·북·뿔소리 소리를 반주 삼아 함께 노래 불러 녹음하였는데, 이것이 ‘임을 위한 행진곡’이 만들어진 배경입니다.

이 녹음테이프를 당시 기독교청년회회가 2000여개 복사해 전국에 배포하였고 이후 민주화운동이나 노동운동, 시민운동의 현장에서 자주 불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수구 쪽에서 이 노래가 북에서 배포된 노래이니, 김일성 찬양가이니 하는 낭설을 퍼뜨려 ‘친북좌파의 노래’라는 식의 잘못된 인식이 생기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돌아보면 최순실 국정농단의 실체가 드러나게 된 계기는 정유라 입학비리에 대한 항의시위를 하였던 이화여대 학생들이 마련한 것이고, 5·18민주화운동의 주도세력도 시민군에 소속된 민주화를 염원하던 이 지역 학생들이었고, 4·19 혁명, 6·10민주항쟁 등 대한민국 민주화를 이끄는 데 앞장 선 사람들 역시 당시 대학생·사회초년생 등 청년들이었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어서인지, 유래가 없는 경기침체로 경제적 독력이 늦어서인지 청년의 나이 기준도 점차 상향되고 있

습니다. 29세까지를 청년으로 보던 종래의 기준이 40대 초반까지로 변화되고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청년들은 어느 순간 주류 정치·사회·문화에서 점차 멀어지고 소외되고 있다는 목소리를 냅니다. 먹고 살기가 팍팍해 자신의 목소리를 낼만한 여유가 없기 때문일 겁니다.

그럼에도 촛불혁명으로 일컬어지는 이번 대선의 단초는 또 다시 청년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부디 새로운 정부는 어려움을 때마다 이 나라의 민주화를 이끈 청년들의 정 의감·열정·패기가 꺾이지 않도록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주력하고, 인사에서도 청년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을 과감히提拔하였으면 합니다. 프랑스는 최근 만 39세의 젊은 대통령, 마크니에 마크롱을 선출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기준이라면 ‘청년 대통령’입니다.

청년의 성장과 사회·정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국가에 희망이 있을 리 없습니다. 출산·실업·국가비전 등 거의 모든 대한민국의 문제해결의 키워드는 청년입니다. 다시 한 번 새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고,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을 추모하면서 이를 위해 희생한 청년을 중요하길 바라면서 지나친 욕심일까요. 청년이 대한민국과 민주주의의 미래입니다.

기 고

지역 축제를 돌아보며 드는 생각



박 양 수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장

고향을 떠나 서울에 살았던 지난 30년 동안 필자는 지역에서 개최하는 축제를 관찰할 기회를 두어 번밖에 가지지 못했다. 물론 미국에 나가 공부하고 해외 출장을 다니면서 그 지역의 축제를 둘러볼 기회를 몇 차례 가졌지만 그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지는 못하였다. 다만 지역 축제들의 부작용에 대한 비판들은 언론을 통해 가끔 접해왔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장의 홍보의 장으로서 우수축승처럼 생겨나고 이는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재원만 낭비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비판이다.

그러다 지난 1월에 광주전남본부장으로 부임한 후 우리 지역에서 열리고 있는 몇 개의 축제를 돌아볼 기회를 가졌고 최근에는 함평의 나비축제에 다녀왔다. 그 과정에서 지역 축제와 관련한 다음과 같

은 질문들에 대해 생각해볼게 되었다. 지역 축제는 주민이 주인공인 행사인가? 지역 축제는 지역 경제에만 한정된 효과를 가지는가? 아니면 공원처럼 다른 지역 국민들의 삶의 질도 높여주는 외부효과를 가지는가? 지역 축제가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수익성을 가져야 하나? 축제에 따른 직접적인 효과 외에 2차적인 효과는 어느 정도의 가중치로 고려해야 하는가? 지역의 축제는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기능을 해야 하는 것일까?

지역의 축제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뿐 아니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이루어져야 공동체 행사로서 진정한 의미를 새길 수 있다. 물론 축제 자체만으로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희생은 기본일 것이다.

그러나 지역의 독특한 전통이나, 문화유산, 특산물 등에 기반을 두고 그것을 유지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인식을 주민들이 함께 나누고 참여하지 않는다면 전통적인 축제의 의미를 살리기 어렵고 지속성을 가질 수 없다. 물론 독특한 문화유산이 없는 경우에도 함평의 나비축제처럼 타지역과 차별화되는 대상을 찾아내서 주민들의 힘을 모아가면 성공적일 수 있다.

또한 지역 축제가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수익성이 떨어지는 축제를 계속 개최하는 것은 다른 복지지출 등을 줄이는 커다란 희생을 치러야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임차료, 음식 및 지역 특산물 판매와 숙박 등을 통한 직접적인 수익(1차 효과) 이외에 지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미래의 잠재적 관광객 확보, 지역 생산품의 브랜드화 및 신규 기업 유치 등 2차 효과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축제가 기획되어야 할 것이다.

독특한 문화적 자산이나 차별화된 주제를 바탕으로 한 지역 축제는 국민경제 전체의 후생 증진에도 크게 기여하기 때문에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지역 축제는 우리나라의 전통문화 유산을 보호하고 젊은 세대가 이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지역 축제의 활성화는 국외여행에 따른 소득 유출을 완화하는 역할도 한다. 따라서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을 조성하는 것처럼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가 지역 축제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외부효과를 고려하면 어쩌면 당연하다.

그러나 비효율성을 저쩌고 지자체장의 수익성 확보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

정부와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가 일정비율로 재정을 부담하는 매칭펀드(matching fund) 시스템의 채택이 타당해 보인다.

아울러 한 지역의 축제만으로 관광객들을 숙박까지 유도하며 오랫동안 머무르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변 기초자치단체와 협조나 광역자치단체의 개입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지역의 축제와 주변의 관광이 연계될 수 있는 지점에 리조트 등 고급 숙박시설을 조성하는 것이다.

한편 10~20년 앞으로 시계를 넓혀보면 지역 축제는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도 지속성을 담보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는 지역 축제의 내용들을 가상현실로 구현해야 하는 한편 젊은 세대들이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도 크게 강화해야 한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창의적인 인재는 자연과 인문학을 아우르는 체험학습을 통해 길러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자치단체장의 능력이다. 지역 축제의 방향을 정하고 홍보하며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재원을 배정받는 것은 상당부분 자치단체장의 능력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社 說

주변 강대국에 맞설 유능한 진용 구축을

새 대통령에 바란다 ⑧ 외교·안보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일주일도 못 돼 북한이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이번엔 발사한 미사일은 비행 궤적으로 미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어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특히 사거리가 5천500km를 넘는 ICBM일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미국 알래스카주(州)가 사정권에 들어가며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는 얘기이다.

북한이 ICBM 실전 운용으로 미국 본토에 대한 핵공격 능력을 갖출 경우 한미 동맹의 근본이 흔들릴 수 있다고 군사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북한의 노림수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음을 분명히 인식시키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핵미사일을 억제하고 응징할 수 있는 강력한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작금의 외교·안보 상황은 녹록지 않다. 북핵 문제도 그렇지만 이미 배제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도 만만치 않은 과제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인 샌드위치 신세로 이를 어떻게 풀어가야 주목된다. 박근혜 정부에서 성급하게 합의한 한·일 위안부 문제도 새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노벨평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연세 전화 통화를 하면서 외교 안보 핵심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북핵과 한·미동맹, 사드 및,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에 대한 상대국의 기본 인식을 확인하고 북핵 공조를 다짐했다.

한·미·간 원만한 공조는 중국과 일본 및 러시아의 북핵 대응 협력을 이끌어내는 지렛대 역할을 할 것이다. 문 대통령이 시 주석과의 통화에서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는 북핵 해법 구상을 밝힌 것도 중요한 대목이다. 사드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에 특사단을 파견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제안은 시의적절했다. 아베 총리와의 통화에서는 “한국 국민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위안부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밝힌 것도 국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이들 주변 강대국과 협상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외교·안보·통일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서 최선의 전략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견고한 주권의 토대 위에서 장기적 안목으로 국가의 생존을 기획하는 능력 있는 전략가 집단들을 형성하여 개혁의 주체로 삼아야 할 것이다.

세계수영대회 추가 재원 마련 신경 써야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총사업비가 1697억 원으로 확정돼 운영 준비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하지만 당초 광주시가 정부에 요구한 1935억 원에 비해 238억 원이나 삭감돼 향후 재원 마련에 신경이 곤두서게 된다.

광주시는 애초 국비 606억 원, 시비 716억 원, 자체수입을 613억 원으로 배분했다. 하지만 정부는 시가 요구한 사업비 중 국비 비중을 124억 원이 삭감된 482억 원으로 책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나머지 사업비 1천215억 원을 시비와 입장권 판매, 기업 후원 등 자체 수입으로 충당하기로 하고 이달 말까지 수영대회 조직위원회 등과 협의하

는 계획이다.

하지만 시가 요구한 사업비보다 200억 원 이상 부족한 만큼 당장 추가 재원 마련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는 부족한 사업비를 기업 후원이나 불요불급한 지출 억제 등을 통해 마련할 방침이지만 걱정이 앞선다.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도 어느 정도지 수백억 원의 사업비를 마련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때마다 경기 불황과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여파로 기업 후원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광주시는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아보고 자체 재원 마련 방안도 강구하기 바란

無 等 鼓

증언은 생명력이 있어 살아 숨 쉬는 속성을 갖고 있다. 한 사람의 증언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역사를 바꾼 사례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생물학자이자 환경학자인 ‘레이첼 카슨’의 증언은 20세기 세계를 움직인 최고의 증언으로 꼽힌다. 레이첼 카슨은 1958년 1월, 매사추세츠주의 친구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는다. 정부 소속 비행기가 모기 방제를 위해 숲 속에 DDT를 살포했는데, 이후 자신이 기르

는 흑한 상황 등 농약의 폐해에 대해 증언한다.

그의 책과 증언은 서구 환경 운동의 시작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로 인해 1963년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은 환경 문제를 다른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1969년 미국 의회는 DDT가 임을 유발할 수 있다는 증거를 발표했으며, 1972년 미국 환경부는 DDT 사용을 금지하게 된다.

최근 전남대병원이 5·18항쟁 기간 동안 많은 새들이 부상자를 치료했던 의료진 28명의 증언을 담은 ‘5·18 10일간의 아픈 병원’을 펴내 전국적인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 증언록에는 지난 37년간 미처 말하지 못했던 당시의 참혹한 상황이 들어있다. 전두환 씨가 회고록을 통해 5·18에 대한 망언을 쏟아 내며, 사실상 역사 쿠데타를 일으킨 상황이어서 출간된 의미는 더 컸다.

광주 시민은 30년을 넘게 기다려 왔다. 5·18의 명예 회복 이전에, 역사의 진실을 밝힌 증언을. 발표 명령이나 명령 과정의 계통에 있었던 군인들의 용기 있는 증언이 절실하다.

/채희종 사회2부장 chae@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7가11(일간) 우편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지 사 인 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우편물 발송 10,000원 1부 500원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